

[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 知

차익실현에는 언제나 명분이 필요하다 (6월 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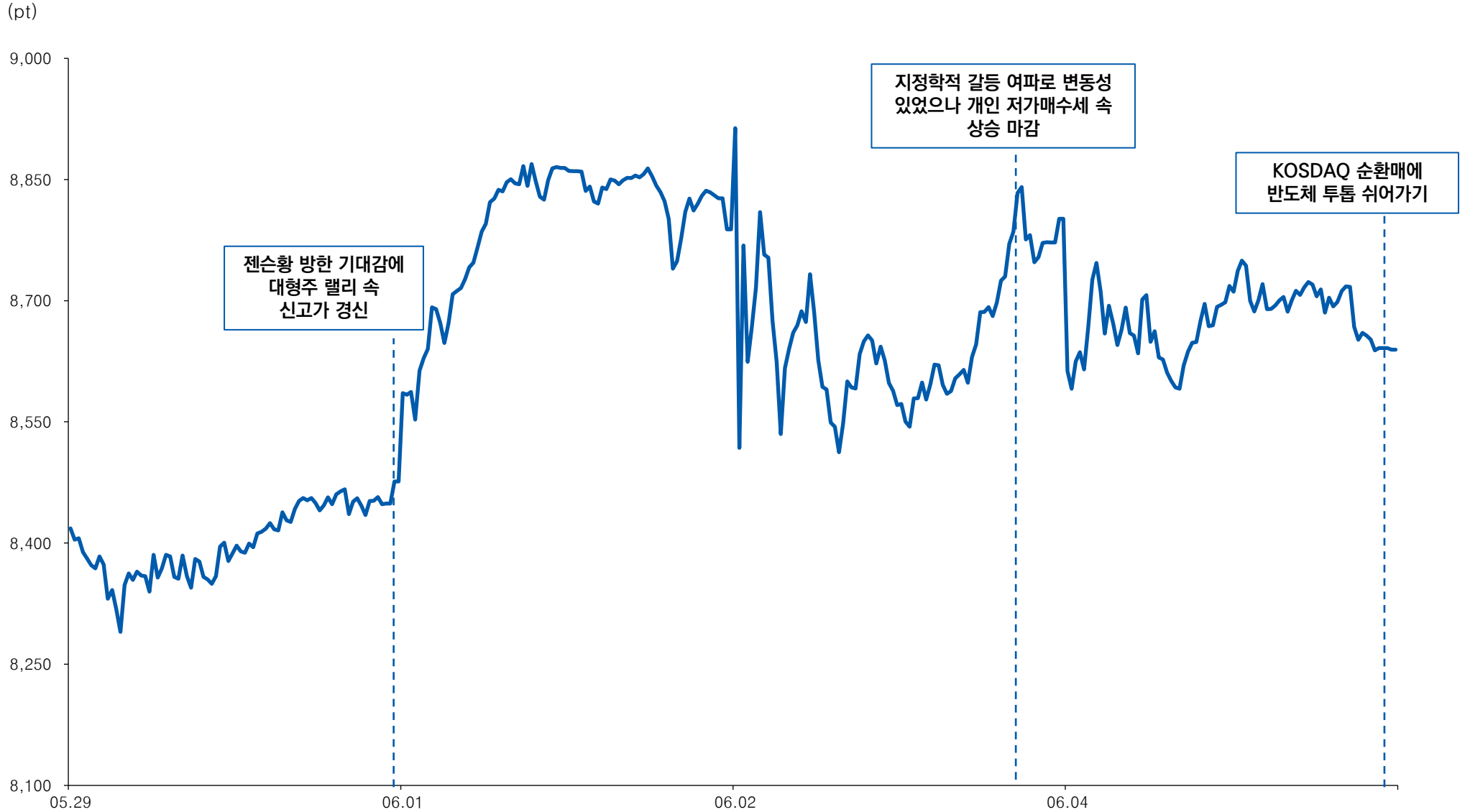
SUMMARY

차익실현에는 언제나 명분이 필요하다 (6월 2주)

- 주간 KOSPI, KOSDAQ은 각각 +5.6%, -5.0% 등락했습니다. KOSPI는 반도체 강세와 엔비디아 AI PC 기대감, 젠슨 황 방한 기대가 맞물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KOSDAQ은 상대적 소외가 지속됐고, KOSPI도 상승 종목은 소수 종목에만 집중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개인 자금이 대형 반도체로 집중되며 시장 내부 확산이 제한됐고, 이로 인해 지수 신고가와 체감 수익률 간 괴리가 확대됐습니다.
- 향후 조정의 명분은 전쟁, 유가와 금리보다 5월 종목 쏠림에 따른 PER 중심 상승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와 금리는 단기 부담 요인이지만 조정의 근본 원인이라기보다 과열 해소를 정당화하는 후행적 명분에 가깝습니다. 반면 KOSPI 이익추정치는 IT 중심으로 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5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9.4% 증가하며 2분기 호실적을 예고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효과까지 감안하면, 7월 실적 발표 이후 EPS 재상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도 아직 추세 훼손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차익실현이 나타났지만, 이는 AI 수요 둔화보다는 높아진 기대치 대비 가이던스 상향 폭이 부족했던 데 따른 실망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알파벳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Capex 확대는 AI 인프라 투자 장기화 신호로 해석 가능합니다. AI 서비스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이 이어진다면 HBM, 메모리, AI 서버, 전력 인프라 등 한국 밸류체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기계적 리밸런싱 매도와 반도체 중심 차익실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월 단 3거래일 만에 KOSPI에서 16.1조원을 순매도했고, 반도체·IT가전·자동차·IT하드웨어 등 대형주 중심 매도 압력이 지속됐습니다. 다만 KOSDAQ은 상대적으로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주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정학 갈등 완화와 환율 변동성 축소가 동반될 경우 외국인 자금 재유입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KOSPI와 KOSDAQ 모두 ADR이 팬데믹 저점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KOSDAQ은 지수 부진, 낮은 ADR, RSI 과매도권 진입이 동시에 나타나며 단기 반등 명분이 커진 구간입니다. 여전히 6월 핵심은 주도주 이탈이 아니라 주도주 유지 속 순환매 확산입니다. 후행적 명분을 대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될 IT 섹터에서 저가매수 기회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가와 함께 찾아온 선순환매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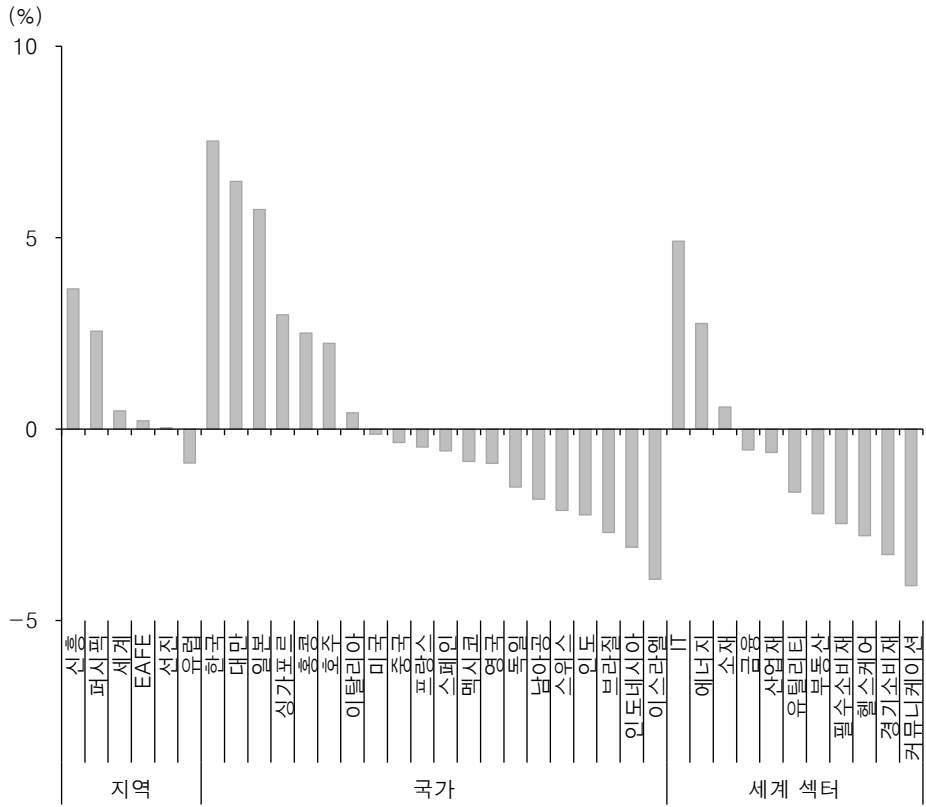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 수급 쏠림 완화와 신고가 경신 병행!

- 주간(5/29~6/4) KOSPI, KOSDAQ 각각 +5.6%, -5.0% 등락. 반도체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엔비디아 AI PC 기대감, 젠슨황 방한 대기 속 KOSPI 신고가
- KOSDAQ 상대적 소외 지속됐으나 낙폭 과대 인식 및 반도체 대형주 쉬어간 4일(목요일) KOSPI 아웃퍼폼. 반도체 소부장 중심 KOSDAQ 반등
- 수급 쏠림 확실히 완화되며 보험, 소프트웨어(NAVER, 젠슨황 기대), 소매(유통, 백화점) 등 다양한 업종으로의 온기 확산됐던 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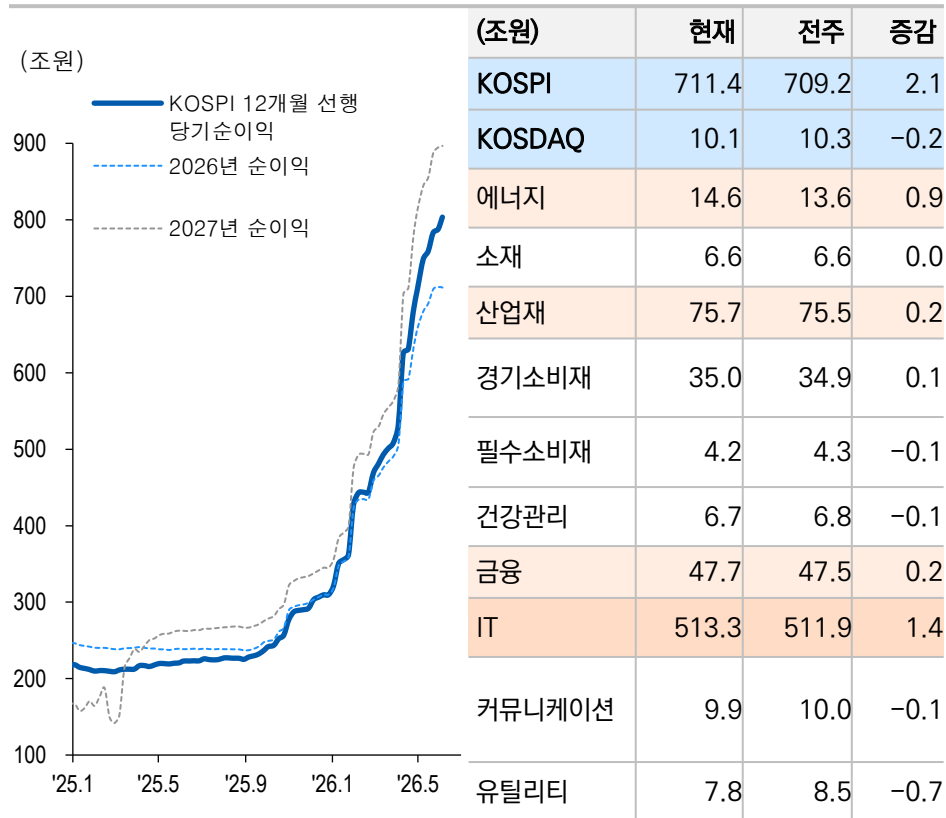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보합권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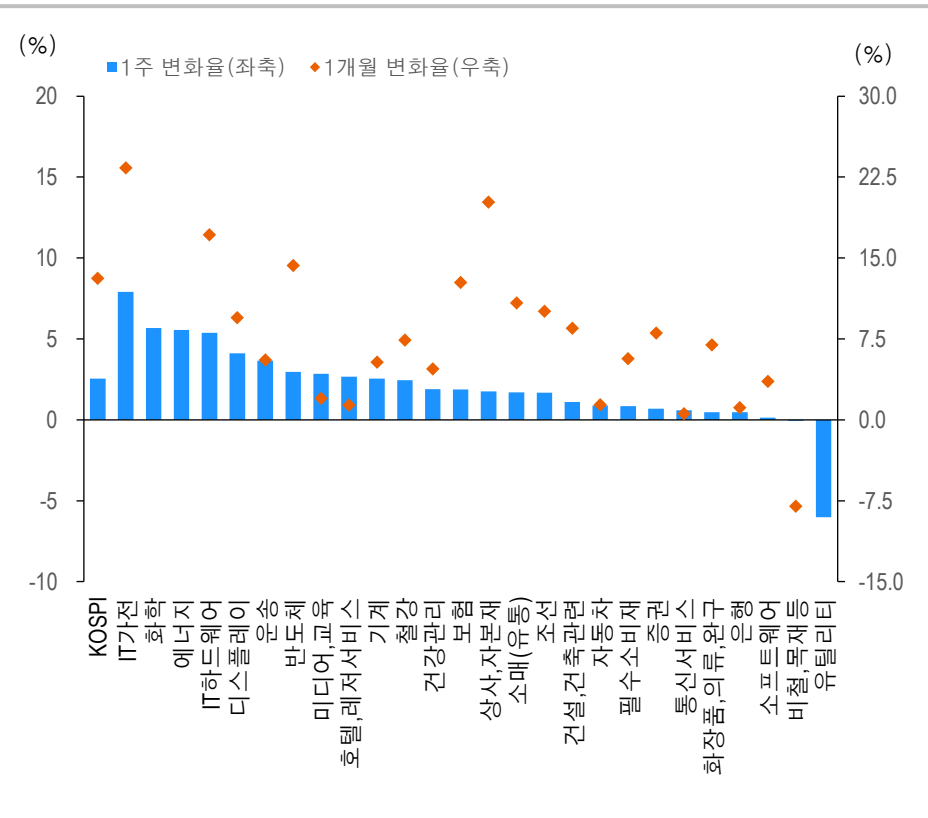
- KOSPI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됐으나 보합권 등락, KOSDAQ은 0.2조원 감소.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2.1조원 증가
- KOSPI IT 섹터 이익 증가 지속. 다만 실적 모멘텀 부재한 영향에 상향 폭은 전주 대비 둔화. 여전히 산업재, 금융 등 섹터 전반 온기 확산세도 지속. 6월 대외 변수 완화된다면 섹터 순환매 기대해 볼 이유
- IT가전(2차전지), 화학, 에너지 업종 주간 EPS 상승 상위 업종. 여전히 유틸리티, 비철, 소프트웨어 업종은 EPS 하향 조정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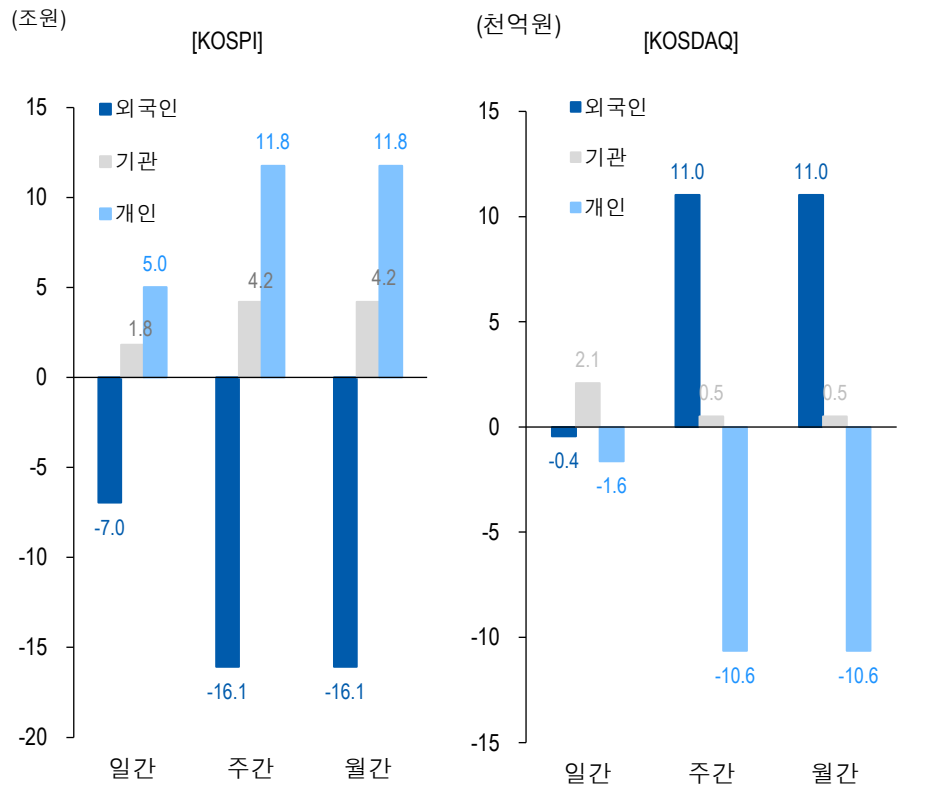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기계적 리밸런싱 지속

- 외국인 6월 단 3거래일 만 16.1조원 순매도하며 반도체 업종 중심 기계적 리밸런싱 차익실현 매물 출회 지속. 반면 KOSDAQ은 순매수 주체로 활약
- 여전히 주간 반도체, IT가전, 자동차, IT H/W 등 대형주 순매도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물량 다 받아내고 있는 개인투자자
- 6월 지정학적 갈등 완화되며 환율 변동성 축소된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가능할 전망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상사,자본재	반도체	반도체
	건설,건축관련	소프트웨어	IT가전
	은행	자동차	IT하드웨어
	에너지	보험	소프트웨어
	화학	소매(유통)	자동차
순매도 상위	IT하드웨어	화학	증권
	자동차	기계	에너지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건설,건축관련
	IT가전	IT가전	은행
	반도체	상사,자본재	상사,자본재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박 5일(6/4~6/8)간 한국 체류하는 젠슨 황 CEO의 광폭행보 기대

국내 기업과 메모리 뿐 아니라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등 다방면 협력 기대

젠슨 황 방한 일정 정리

(6/4~6/8, 4박 5일 일정)

1	2	3	4	5	6	7
<p>일자: 6/1</p> <p>일정: 대만 GTC Taipei · Korean Partner Night</p> <p>관련기업: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p>	<p>일자: 6/4 저녁</p> <p>일정: 한국 입국</p>	<p>일자: 6/5 저녁</p> <p>일정: 성수동 '삼겹살 회동'</p> <p>관련기업: SK, 현대차, LG, 네이버</p>	<p>일자: 6/7</p> <p>일정: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회동</p> <p>관련기업: 엔씨소프트</p>	<p>일자: 6/7</p> <p>일정: 잠실야구장 두산 베어스 시구</p> <p>관련기업: 두산</p>	<p>일자: 6/8 오전</p> <p>일정: AI·로봇 스타트업 비공개 간담회</p> <p>관련기업: AI·로봇 스타트업</p>	<p>일자: 6/8 오후</p> <p>일정: 출국</p>

★ 주: 언론 보도상 신뢰도가 높은 일정 중심 정리

자료: 언론 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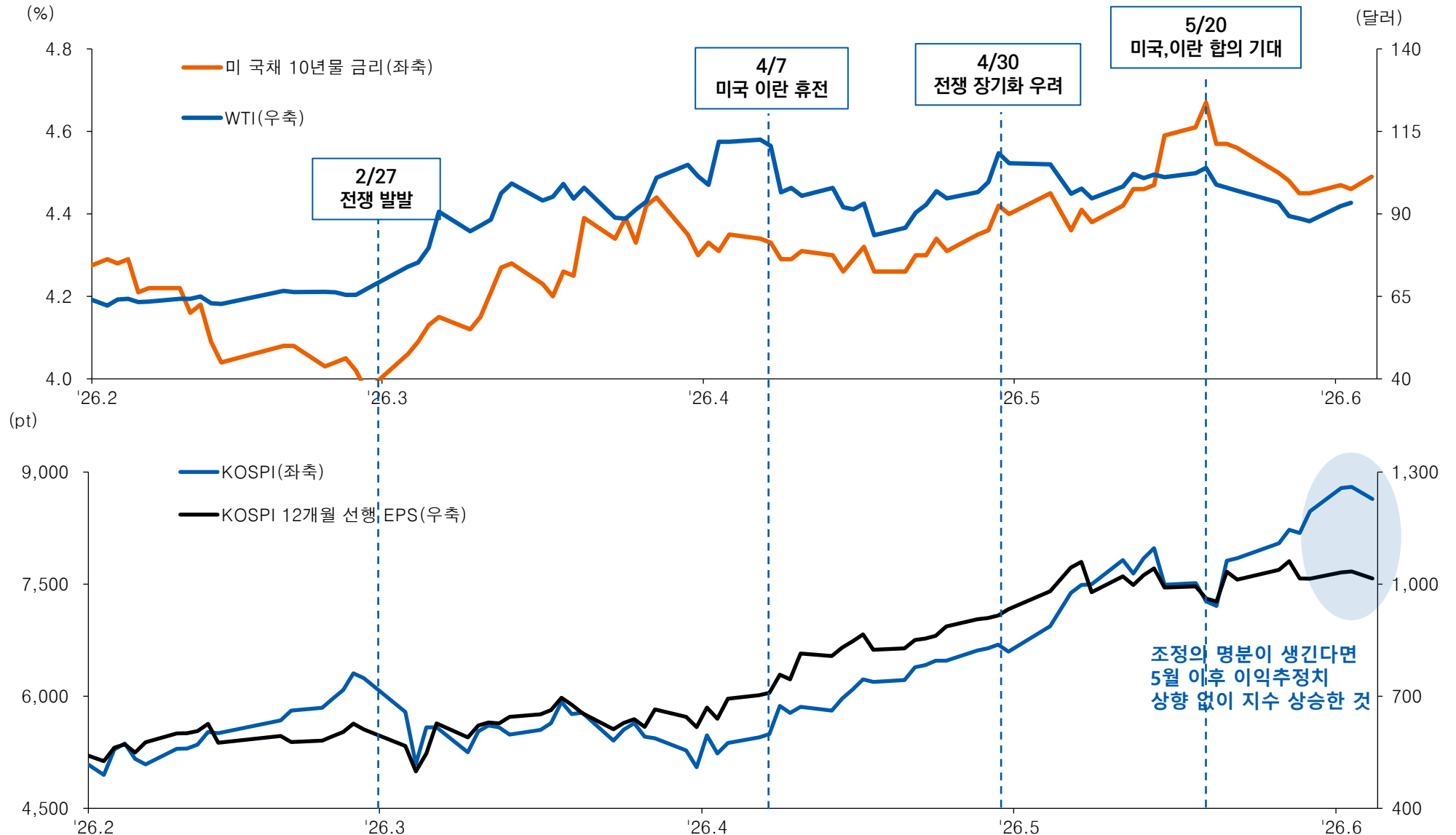
주간 Market Calendar

6월 2주차 주간 일정

	6월 8일(월)	6월 9일(화)	6월 10일(수)	6월 11일(목)	6월 12일(금)
경제지표			미국) 5월 CPI	미국) 5월 PPI 유로존) ECB 기준금리 결정	미국)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정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북중미 월드컵 개막
기업	애플 WWDC (6/8~12)		대만) TSMC 5월 매출 한국)카카오 노조 부분파업		미국) 스페이스X 상장 전망 한국) 코스피200, 코스닥150 리밸런싱
주목 Point	수요일 소비자물가 최종요 이벤트로 판단. 현재 페드워치 기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 예상치 하회 물가 나온다면 우려 불식 가능, 예상치 상회한다면 기준금리 인상 우려 커질 가능성				

조정의 유력 명분은 전쟁, 유가와 금리가 아닌 5월 증목 쓸림으로 인한 PER 중심 상승

유가와 금리는 조정의 후행적 명분 찾기에 불과, 근원적 원인이 될 수 없음. BUT 이익추정치 상향 둔화는 일시적 조정의 명분이 될 수 있음



자료: 언론 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익실현 명분이 브로드컴 실적과 알파벳 유상증자?

-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시간외 하락하며 반도체 대형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빌미로 작용. 주가 하락은 AI 수요 부진이 아닌 높아진 기대치 대비 가이던스 상향 폭 부진. 마진 & 램프업 속도에 대한 의구심 발생 영향. AI반도체 매출과 주문 강도는 여전히 견조. 한국 인프라 밸류체인에 긍정적
- 알파벳: 알파벳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AI 인프라 투자 가속화 신호로 해석. AI 서비스 수요가 공급능력 초과하는 상황에서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추가 상향 가능성 기대. 특히 버크셔의 대규모 지분 투자는 AI 인프라 사이클이 장기화 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

AI 수요 둔화 우려로 연결될 필요 없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

구분	수치	컨센서스	핵심
전체 매출	221.9억 달러	부합	+48% YoY, +15% QoQ. 사상 최대 매출
Semiconductor Solutions	150.1억 달러	상회	+79% YoY, +20% QoQ. AI 반도체가 성장 주도
AI 반도체 매출	108억 달러	상회	+143% YoY, +29% QoQ. 수요 둔화 신호 아님
Infrastructure Software	71.8억 달러	하회	+9% YoY, +6% QoQ. 실적 내 유일한 아쉬움
Non-GAAP 매출총이익률	77.1%	상회	AI 반도체 믹스 확대에도 마진은 예상보다 양호
Non-GAAP EPS	2.4달러	상회	+54% YoY, +19% QoQ. 이익도 컨센서스 상회
3Q 전체 매출 가이던스	294억 달러	상회	+84% YoY, +33% QoQ. 외형 성장 지속 전망
3Q AI 반도체 가이던스	160억 달러	상회	+208% YoY, +48% QoQ. AI 매출 램프업 지속
FY26 AI 반도체 가이던스	560억 달러	유지	상반기 192억 달러, 하반기 implied 368억 달러
핵심	AI 수요 훼손 아님	AI 수요 둔화가 아닌 높아진 기대치, 가이던스 미상향, 병목 우려에 따른 차익실현 성격. 한국 인프라 밸류체인은 오히려 긍정적	

자료: 브로드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버크셔의 알파벳 투자, AI Capex 확대는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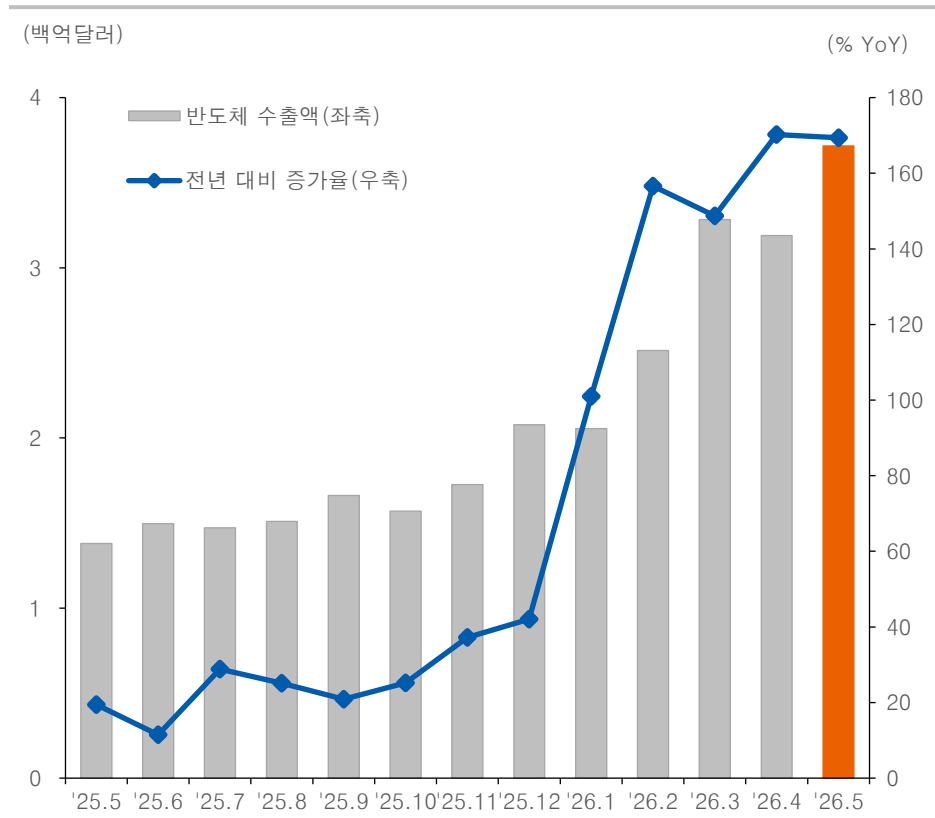
구분	내용	해석
자금조달 규모	최초 800억 달러, 이후 847.5억 달러로 확대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시장 자금조달로 이어지는 국면
조달 목적	AI 인프라·컴퓨팅 역량 확대	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이 큰 상황
버크셔 투자	100억 달러 사모 투자	가치 투자자의 Alphabet AI·클라우드 전략에 대한 신뢰
Capex 전망	2026년 1,800억~1,900억 달러 수준으로 50억 달러 상향	하이퍼스케일러 AI 투자 사이클 장기화 기대
수요	AI 서비스 수요가 공급능력 초과	AI 반도체·HBM·SSD·전력·데이터센터 수요 지속 근거
한국	HBM·메모리·AI 서버·전력 인프라 수혜 기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함 한국 AI 인프라 밸류체인에 긍정적

자료: 알파벳,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5월 수출데이터는 2분기 역대급 호실적 예고, 7월 실적발표 후 재차 추정치 상향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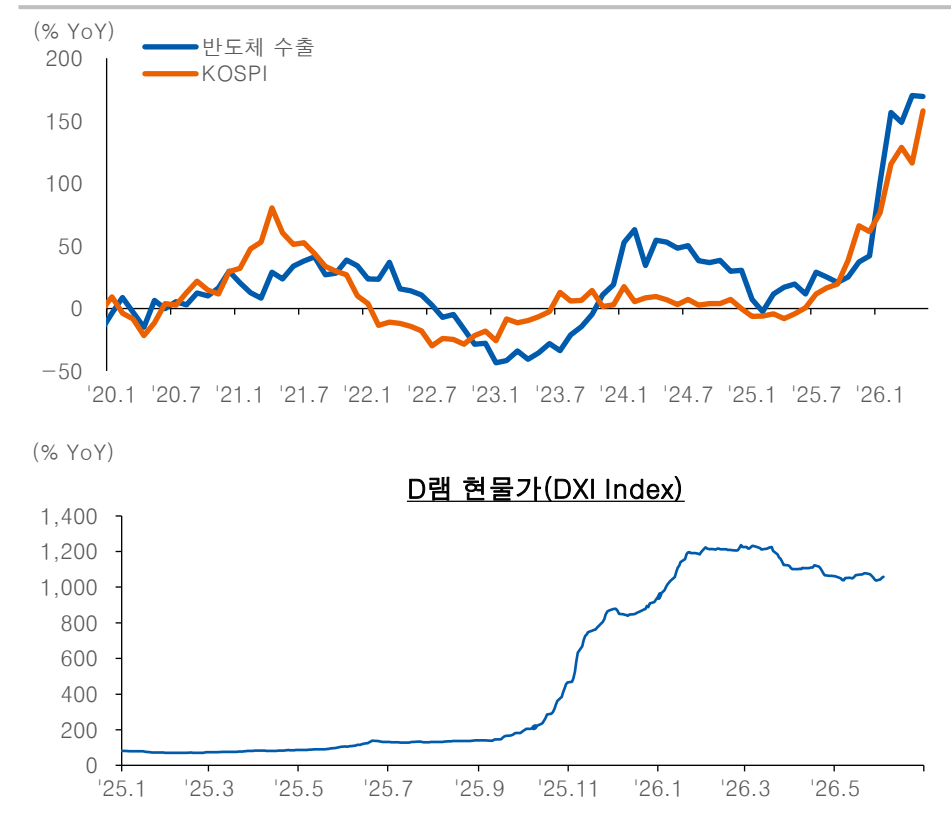
- 5월 반도체 수출액 371.6억달러로 전년 대비 169.4% 증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 경신. 3월가 4월에 이어 3개월 연속 300억달러 상회
- 메모리 가격 급등과 5월 평균 원/달러 환율 1,490원이 보여준 것은 2분기 호실적의 예고편. 6월 평균 원/달러 환율 1,500원 상회
- 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익추정치 급격히 상향되었던 흐름 2분기에도 유지될 전망.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PER 중심 5월 급등은 우려 Point 아니라는 판단

또다시 역대 최고치 호수출 기록해버린 5월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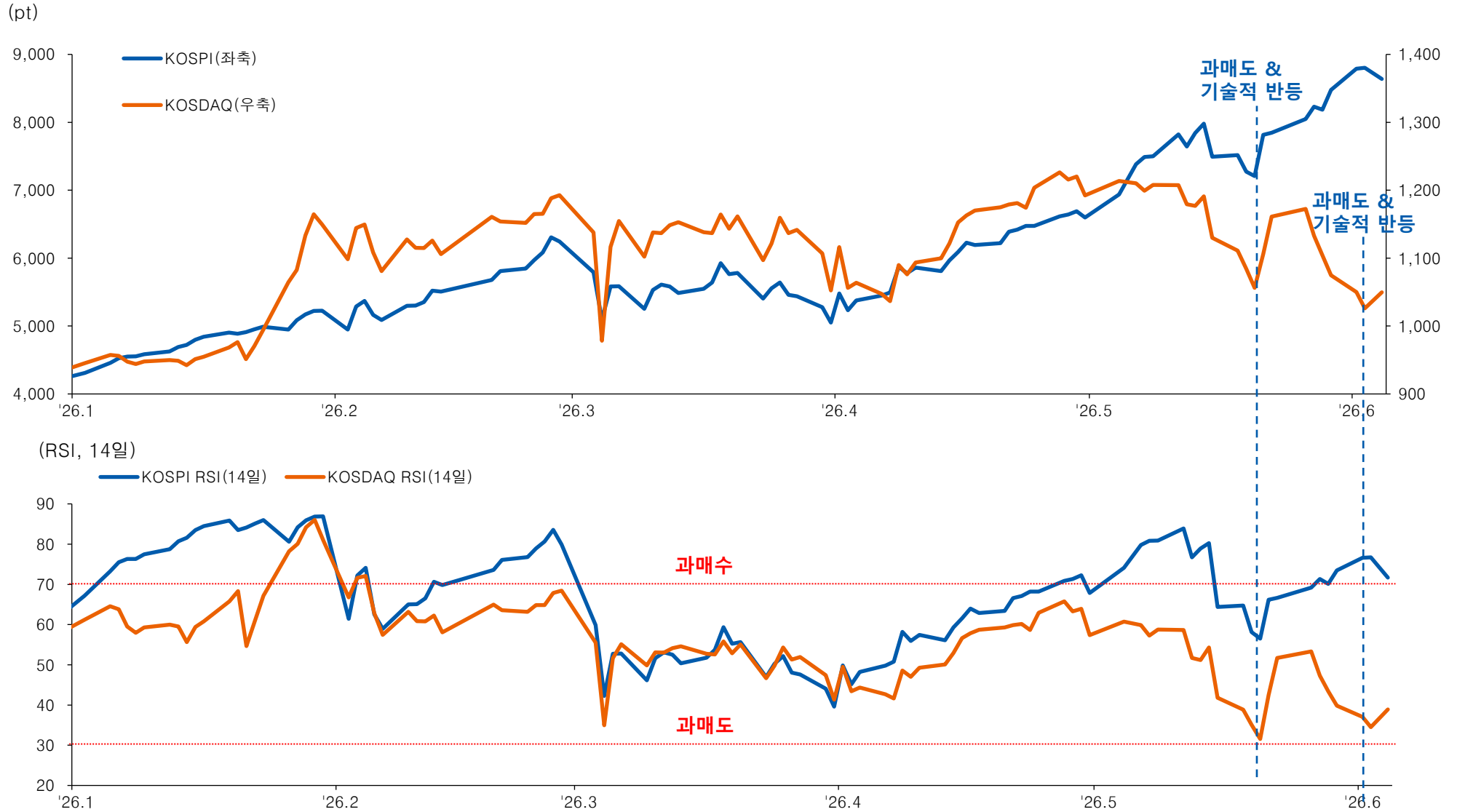
KOSPI와 수출은 동행, 메모리 가격과 원/달러 환율 동반 고공행진



자료: UB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낙폭 과대 구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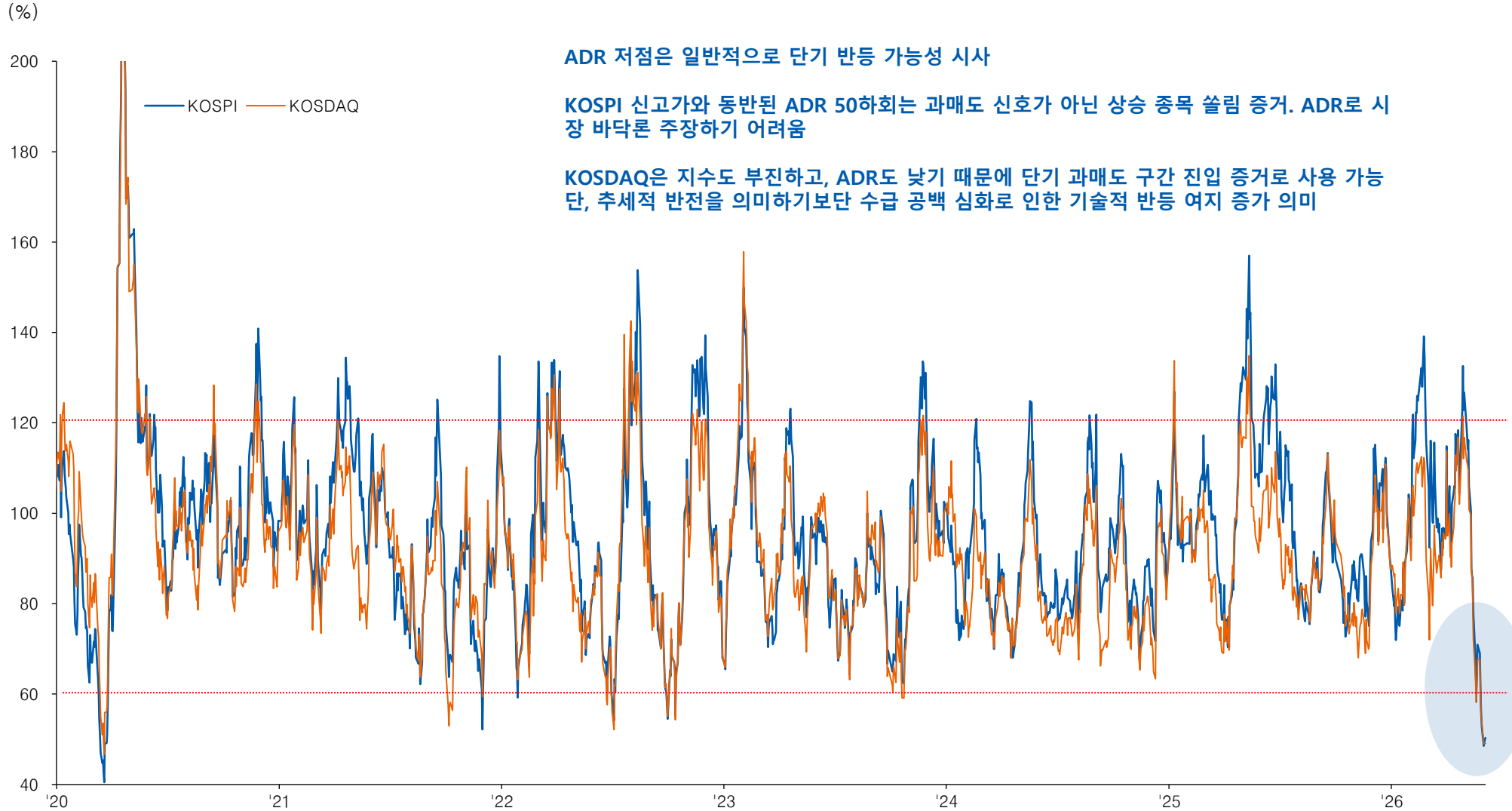
RSI(14일) KOSPI 과매수 구간 & KOSDAQ 과매도 구간 진입. 과매수/매도 구간 진입에 따른 기술적 조정 유효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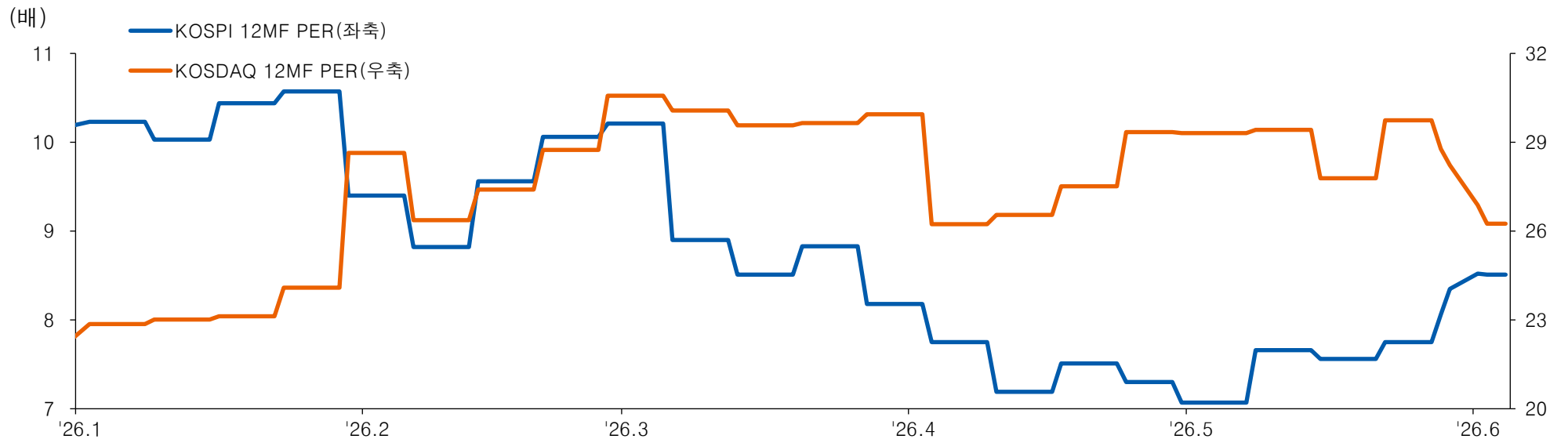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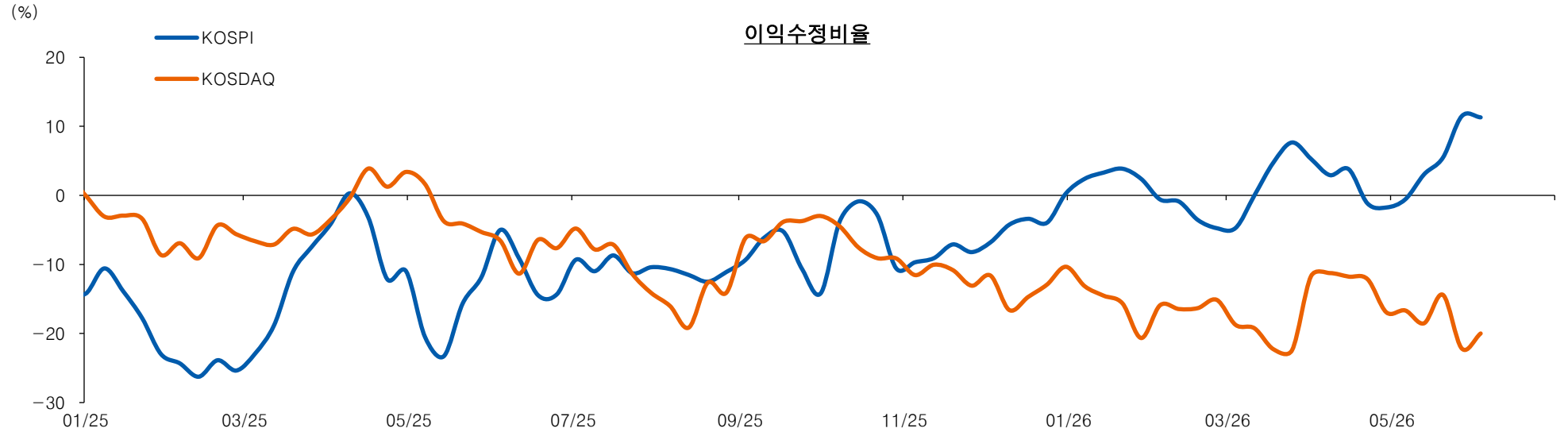
ADR이 팬데믹 저점 수준인 KOSPI & KOSDAQ

KOSPI ADR 50 하회 = 극단적 쏠림 현상 의미, KOSDAQ은 기술적 반등 여지 증가



이익 모멘텀 격차는 역으로 AI 의구심 발생 시 KOSDAQ 반등 가능성 시사

결국 KOSPI 이익 모멘텀에 대한 우려(AI에 대한 의구심)가 커지면 KOSDAQ은 반사 수혜 받을 수 있는 환경, 추세적 반전은 여전히 부정적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이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 知